

2018년 3월 20일, 남원읍 한남리 한남리노인회관, 문순덕(김은정·정이슬) 조사.
고태행(여, 1942년생, 남원읍 한남리)

- 줄거리: 새어머니가 외출하면서 의붓딸인 콩데기에게 많은 양의 곡식 껍질을 벗기고,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라고 시켰다. 콩데기를 불쌍히 여긴 참새들이 곡식 껍질 벗기는 것을 도와주고, 까마귀는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도와주었다.

[조사자] 콩데기 꾹데기 알아집니까?

[제보자] 다는 몰라도 대강 아는디 어떻 허느냐면 콩데기 꾹데기 그니까 콩데기는 다슴똥이고 꾹데기는 난 똥이라.

옛날에 어머님이 어디 가명 산디를 멍석에 널었어. 뱃 맞출라고. 어디 가면 이걸 손으로 쌀 같이 까 노라. 콩데기보고 경 허니까 어떻 깔 거라. 깔 수가 있나? 두 세 방울이야 까지. 어떻게 그 멍석 이마니 한 말로 하면 스무 갠 될 건디 어떻 걸 다 까.

게난 콩데기가 막 울주게.

“어떻 행 이걸 까냐.”

막 우난 새들이 와서 그걸 다 까쥔젠 해. 콩데기 불쌍헤그넹 ‘조조조조조’ 생이들이 그걸 다 까가지고.

어디 갓당 와보니까 그걸 다 깎이니까 어머님이 완전 신기할 거 아니? 이젠 또 어디 가면서 터진 항에 물 ㄱ득 길어노라 이거라.

벌러진 항에 물을 질러다 놔지카. 한번 질러당 왕 보민 엇어지곡 한번 질렁 보민 엇어지곡. 어떻 말이라. 어멍 말 안 들으민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디. 막 울면서 갔다왔다 하는 디 까마귀가 올레 왕 앓앙 ‘구렁지락 깡굴락’ 그건 무슨 말이나 한 번 더 해 봐라. ‘꾸렁지락 깡굴락’ 헛어.

소나무에 송진. 진이 내리는데 그거 헤다가 항을 굴러가지고 불에 녹영 이렇게 이렇게 벌러진디 불에 멘도롱 살짝 녹아. 고무 이렇게 시리. 그걸 영 행 굴러네 지니까 항을 붙여가지고 물을 ㄱ득 지어다 닦어.

- 핵심어: 콩데기, 꾹데기, 참새, 까마귀, 소나무, 송진, 항아리, 물, 다슴똥(의붓딸)